

## ❖ 죽은 푸쉬킨이 알콜 중독자를 살려내다, 단 소비에트 시대 동안만 ...

- I. 세르게이 도나토비치 도블라토프  
 II. 작품 『보존지구』  
 III. 소비에트 시대, 러시아 문학과 문학인

### I. 세르게이 도나토비치 도블라토프(1941 ~ 1990)

- 유대인인 연극연출가 아버지와 아르메니아 태생의 연극배우 어머니 사이에서 2차대전 중 피난지인 우랄 산맥의 우파라는 도시에서 1941년 출생
- 49년 부모가 이혼하게 되자 어머니와 함께 레닌그라드에서 빈곤한 생활에 빠져들게 됨.
- 59년 레닌그라드 대학 편-우그르 인문학부에 입학하고 첫사랑과 대학 3학년때 결혼을 하게 되나 거의 동시에 이혼을 하고 대학에서도 방종한 품행을 이유로 퇴학을 당하게 되고 군대에 징집된다.
- 2미터에 육박하는 건장한 체격 등으로 인해 입대한 군에서는 수용소 간수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때부터 마치 도스토예프스키가 시베리아 유형 중 갖은 인간의 유형을 관찰하게 되었듯이 그 역시 수많은 인간군상과 소비에트 체제의 '바닥'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그는 자연스레(!) 작가의 꿈을 키우게 된다.
- 체대 이후 60년대 초반부터 잠깐씩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또 그러는 동안 꾸준히 글을 써 여러 출판사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게 되나 마지막 순간 가해진 당국의 방해 등으로 막상 출판은 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 그의 원고 중 일부는 이른바 "지하출판" 등의 형식으로 간간히 빛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 때 그의 실의는 깊어갔고 술에 많이 의지하게 되었다.
- 70년대 초, 추방과 반강제적인 망명이 줄을 잇던 시절, 전공과 어느정도 관련한 발트해 지역 근무를 자원해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서 2년 반을 지내기도 했으며, 경제적인 곤궁을 해결하기 위해 76년과 77년 두 차례의 여름 성수기에는 "푸쉬킨스키에 고르이"라고 하는 소련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에서 가이드 일을 하기도 했다. 우리 작품 <보존지구>는 이때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 78년, 그는 작품에서처럼 먼저 서방으로 떠난 아내와 딸의 뒤를 따라 빈을 거쳐 뉴욕에 정착하게 된다. 이후 미국에서 <새로운 미국인>이란 북미대륙의 망명 러시아인을 위한 문예-시사잡지의 편집을 맡으며 <여행가방>, <지점>, <우리들의> 등의 작품을 활발하게 내놓게 된다.
- 1990년 9월, 50회 생일을 앞두고 그간의 작품을 모은 작품집 간행을 서두르다 그만 8월 24일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된다.

## II. 작품 『보존지구』

= 허구와 사실, 사건의 진행과 회상, 자전적 요소의 개입, 개인적 기록과 예술적 창작 등 여러 경계를 넘나들며 구성.

또한, 소련을 떠나 망명을 결심하게 되는 과정에서 소비에트 시민으로서, 작가로서, 남편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불안함, 절망감, 고뇌 등이 묘사.

### 1. 시작

1) 21 ~ 41 : 레닌그라드에서 보존지구로 향하는 여정. (26쪽,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 “언어 사랑”). 밀고자 구리야노프와 KGB 요원인 벨라예프 소령(35~36쪽), 도착한 첫날밤을 보존지구의 호텔에서 묵게 됨. 도착한 첫날 저녁의 상념들(38~41쪽 - “언어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사물과 합쳐질 수 없다”).

### 2. 전개

1) 41 ~ 69 : 도착한 다음날. 사무실 지도관 류드밀라 등 여전히 보존지구의 사람들의 면접(푸쉬킨에 대한 맹목적인 존경과 흠숭[欽崇]의 감정을 강요하는)을 거치고, 이윽고 머물게 될 집을 찾아 소스노보로 이동. (51쪽: 주정뱅이 마르코프) 미하일 이바노이치 소로킨의 낡은 집에 머물기로 함.

2) 69 ~ 86 : 드디어 수습 딱지를 떼고 일을 시작하게 되는 주인공. 미트로파노프와 토포츠키라는 두 다른 가이드에 대해서도 알게 됨.

3) 86 ~ 98 : 보존지구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주인공, 심지어 글도 쓰기 시작함. 이때 찾아오는 아내.

### 3. 위기

1) 98 ~ 118 : 아내와의 첫 만남과 결혼생활에 대한 회상

2) 118 ~ 150 : 남편을 만나서 왔으나 양쪽 모두 설득에 실패하고 도로 떠나는 타나

### 4. 결말

1) 150 ~ 184 : 아내의 결심이 완전히 굳었음을 알고 레닌그라드로 아내와 작별인사를 하기 위해 떠나는 주인공

2) 184 ~ 195 : 아내를 배웅, 떠난 뒤 11일을 술에 절어 낙담하며 지내는 주인공, 걸려온 전화. “이제는 텅 빈 답답한 방에서 일어나야 했다 ...”

## III. 소비에트 시대, 러시아 문학과 문학인

; 과감히 고국을 떠나는 자, 용기있으라! 고국에 남아 투쟁하는 자, 더욱 용기있으랏!!

- 50년대 중후반의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의 일시적 완화 시기인 이른바 “해빙”의 시기를 거쳐, 맞이하게 된 60년대의 브레주네프 시기는 소비에트 역사에 있어 이중적인 시대로 기록된다.

- 한편으론 소비에트 체제의 안정과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이야기해줄 수 있도록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사실상 내부에선 이미 소비에트 체제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었으며

이는 점차 체제 전체에 대한 적신호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농후하게 하고 있었다.

- 이런 시기, 소비에트 사회에선 이른바 반체제, 또는 저항의 세력이 19세기 러시아 제정 때와 마찬가지로 도시 인텔리겐치야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나갔다.

- 이들은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소비에트 체제의 부당함, 불합리, 폭력적, 반인권적, 억압적 제도에 대한 모순을 ‘각자의 방식’으로 규탄, 비판하기 시작했다.

- 가장 구체적인 예술의 형태인 문학에서 특히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이들은 이른바 지하출판 또는 해외출판 등의 형식으로 소비에트 체제의 어두운 면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발하기 시작했다.

- 물론 서구에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지만, 소비에트의 탈출적 경향을 적극 조장, 수용했다. 소비에트 내부에서도 70년대 초반부터서는 이전의 억제와 유화정책에서 선회해 문제 시될만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끊어내기’ 시작했다.

-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70년대 초중반 러시아 문화/예술객들의 망명(사실상, 소련의 추방조치)의 물결이 또한번 몰아치게 되고, 그 중에는 영화감독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1980), 첼로주자 므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1974), 시인 이오시프 브로드스키(1974) 그리고 작가 세르게이 도블라토프(1978)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1973) 등이 있다.

- 이렇게 70년대의 망명 흐름을 “제3의 망명물결”이라 칭하며, 이들은 소비에트 사회에서 마지막까지 투쟁했던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 물론 이러한 마지막 망명대열에도 끝까지 합류하지 않고 오로지 러시아 땅에서 저항한 인물들 역시 많이 있다. 핵물리학자 안드레이 사하로프 박사(1989), 배우이자 가수 블라디미르 브이소츠키(1980), 문예이론가 미하일 바흐친(1975) 등이 그들이다.

- 각각의 상황이 다 달랐기에 단언할 순 없지만 분명한 것은, 러시아 지식인들에게 소비에트 체제는 저항의 대상이었던 것은 맞지만, 조국으로서의 러시아는 그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끝없는 사랑과 동경, 그리움의 대상이었다.

- 특히, 무엇보다도 모국어로서 러시아어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던 문학가들에게 러시아어를 떠나 작업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거부하고 조국 러시아를 떠난 것은 사실상 그들에게 내려진 정신적 사형선고나 다름없었고, 이를 간파하고 있었던 소련 정부는 가지치기 또는 고사(枯死)의 방법으로 저항적 성향의 양심적 인사들을 제거해 나갔다.

- 망명을 통해 서구에 정착한 인물들은 예외없이 모두가 러시아어로 작품활동을 하며 조국에 대한 자신들의 진정한 애정을 담아내게 되었다.